

40. 성소정결의 결과가 무엇인가?

2012. 9. 3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왜 2300주야 라는 연대를 주신 이유와 성소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모든 사실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 못 다한 사실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엡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소정결 사업으로 성소봉사의 진상을 밝히 드러내시고, 속죄를 위한 진정한 봉사와 땅에 던진 진리를 회복하셨는데, 특히 십계명을 성경대로 회복하여 교회에 제시하셨고 이렇게 회복된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주일이라 하여 예배하는 날인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철 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성소정결 사건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답: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늘성소 봉사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상에 있는 교회에 미쳐야 하는 지대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굳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필요가 없지요.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과 하늘 거민들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은 그 내용이 반드시 교회와 이 세상에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소라고 하면 우선은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한 성막성소와 솔로몬으로 짓게 한 화려한 성전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중건한 제2성전, 그것을 개축한 헤롯의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제도적 성소입니다. 그것들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성소는 그 본래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것들이 참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성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성소입니다. 이 성소들은 참 성소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세 참 성소의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성소가 정결해져야 교회성소가 정결하여지고, 그래서 하늘성소가 정결하여집니다. 하늘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결국 교회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2.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참 성소들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생각한 사실입니까?

답: 질문이 참 묘하네요.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소에 대하여 성경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요2:19~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엡2:19~22을 읽어보지요.

[엡2:19~22]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곳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곧 교회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엡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지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 고전6:19,20과 고후6:16을 봅시다.

[고전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후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 너희 몸, 곧 성도들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몸이 성전입니다. 분명하지요?(예, 분명하네요.)

그러므로 성소정결은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면서 속죄를 친히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런 훼손된 것이 없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아울러 여러 가지 땅에 던져서 짓밟힌 진리가 회복됨으로 세상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소인 교회가 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된 진리를 따라 교리와 신조를 정립하고 신앙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성도의 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딤후3:15을 읽어봅시다.

[딤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시11: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성소가 진리를 땅에 던짐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회개와 속죄봉사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행합니다. 교회성소, 곧 진리의 터가 무너지고 기둥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죄인들만 득실거립니다. 때가 되어 이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때는 역사적 진행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3. 예,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너무나 분명합니다. 2300주야 후에 성소정결이 필요한 이유와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네요. 목사님의 설명을 종합하면서 약간 복습을 한다면, 18, 19세기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서민들이 아주 적어서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갔는데, 계몽운동과 함께 읽기 쓰기 셈하기가 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1800년대에 와서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읽고 쓸 수 있는 세월이 되었고 또 성서공회가 여러 나라에서 조직이 되어서 짠 값에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평신도와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작은 뿔의 실상과 성소정결문제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서 땅에 던져 짓밟힌 진리가 회복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복된 진리를 따라 교회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으로 성소정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회복된 진리를 오늘날 교회가 다 수용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예언을 하셨겠습니까. 회복된 진리를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성소를 바라보게 된 진리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11:19을 읽어보지요.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궤의 뚜껑은 대제사장도 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로 알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소정결문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늘성전에 있는 언약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판을 넣게 한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은 언약의 돌 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지요. 우리들은 흔히 법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법궤라는 말이 사실은 없지요. 언약궤, 또는 증거궤, 아주 드물게 궤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레16:2에 법궤라는 번역이 꼭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그냥 “그 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 안에는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하늘성소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후에 계12:17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계시합니다. 그것은 성소봉사의 근본

적 의미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속죄봉사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속죄봉사로 의롭다고 인정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남은 자손들이 된 사람들이 정결하여진 교회를 이루고 그들은 이 정결하여진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주신 것이 성소정결 기별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4. 그러면 그것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은 아닙니까?

답: 아, 예, 심판에 대한 것은 이미 공부했지요. 그런데 다니엘 7:9~14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22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합니다. 10절에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과 22절에 신원이라고 번역된 말은 동일한 단어로써 “딘”인데요.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 곧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 즉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되지요. 동시에 예수께서 심판장으로서 하늘의 기록부도 살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시69:28]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계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도말당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예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여진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소정결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요 죄가 온전히 용서되는 복음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따른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은 성도의 몸 성소가 정결해야 하지요. 그들은 성소정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몸 성소가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결하여진 복음 진리, 정결하여진 성소의 기별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몸 성소를 더럽힌 상태에 둔다면 그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 성전 정결하라고 건강기별을 주십니다.

5. 건강기별이라니요? 뉴스타트 운동 말입니까?

답: 요즘 뉴스타트라는 이름으로 건강운동이 전해지고 있으니 그렇게 말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몸이 정결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고후6:16~7:1까지 읽으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후6:16~7:1]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

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분명하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지요. 육신의 더러운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목욕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또한 몸을 약하게 하는 습관이나 건강하게 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이나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별은 그냥 건강 자체를 위한 기별이기 전에 성소정결 기별입니다. 성도의 몸 성소가 정결하여지면 교회성소가 정결하여질 것입니다. 교회성소가 정결하여지면 하늘성소가 정결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기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6. 건강기별이 단순히 우리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군요. 그것이 바로 성소정결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건강기별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기별이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성소정결에 대한 것은 아마도 상당히 자세히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또 더할 말씀이 있는지요?

답: 이 성소정결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복된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계12:17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의 후손 또는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창3:15과 계12:17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바로 성소정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14 | 12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증거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것이니까요. 2300주야 전에는 성소정결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300주야가 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지요. 이제는 회복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지요. 그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이고 용, 곧 사단은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궤 안에 보존된 그대로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따라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편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지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혼잡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했다는 뜻으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소를 헐고 타미드를 스스로 차지한 작은 뿌리 곧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소정결 사건으로 바벨론이 드러나고 정결한 교회, 곧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손들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과 온 세상을 향하여 정결하게 된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속하여 사망에 빠진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혼잡된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와서 성소정결 심판으로 회복된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자고 전하는 것이지요.

7.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소정결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깊은 내용이군요. 애청자들께서 이 사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답: 설명이 그리 쉽지 않아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애청자들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소정결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들도 애청자들도 다 깨달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